3자협의체 구성 첩첩산중

명칭·권한·소위원회 구성 등에 이견

서울캠퍼스 1학기 등록금 협상에서 합의된 3자협의체 건설을 둘러싸고 학교측과 학생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3자협의체는 예산편성과 교수인용 등 학교제반 현안에 대해 학생과 교수, 직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학교, 학생측 모두 일단 협의체를 건설한다는 데는 합의가 되었다.

교수협의회, 노조, 총학생회, 기획실은 삼자협의체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지난 6월21일부터 8월11일까지 3차례에 걸쳐 가진바 있으며 오는 29일 정오 본관에서 4차 간담회를 가진다. 이번 간담회에는 부총장, 기획실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연구처장, 재무처장, 기획관리실 기획과장이 학교측 대표로 참석하고 노조위원장, 교수협의회장, 총학생회장, 학자추 사무국장, 학자추 예결위장, 정경대 학생회장, 인복위장이 참석한다.

현재 학교와 학생측이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3자협의체의 명칭과 권한, 소위원회 구성 부분이다.

명칭에서는 학생측이 '대학자치협의회'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학교측은 '대학발전위원회'를 내세우고 있다. 학자추 예결위장 김명수(정외 89)군은 "발전위원회란 말과 자치위원회란 말은 얼핏 별차이 없는 듯하지만 이 단계가 지향하는 성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한에서는 기획실의 안이 3자협의체의 기능 부분에서 '위원회위원이 상정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여 총장에게 건의한다'라고 정의한데 대해 학생회측의 안을 보면 '학내 제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조정하여 그 주된 역할은 다음의 사항에 대한 인준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학교측이 3자협의체를 단순한 심의기구로 보는데 반해 학생측은 의결기구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위원회에 대해서 학생측은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예결산심의위원회 등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기하고 있으나 학교측에서는 소위원회 구성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합의에 이르기까지에는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195회 최 용 제

학술진흥재단, 선정교원에 연구비 지급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지난 5일 94년 공모과제 선정교원에 대한 학술 연구 조성비에서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김기형(국문)교수 등 9명을 선정하여 총 5억4백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연구비를 지급받는 교수는 다음과 같다.

▲김기혁(국문)교수—극어합성 동사 생성의 통사 의미적 해석, 2백18만2천5백원 ▲한학성(영어교육)교수—영어에서의 논리형태부 동사이동에 관한 연구, 1백45만5천원 ▲정혜영(회계)교수—회계관련 분석연구에서 표본 추출 방법이 예측정확도에 미치는 영향, 1백94만원 ▲황현진(화학)교수—운동속도 분석형 광열분광법 개발 및 이를 이용한 반응 동력학의 연구, 4백36만5천원 ▲박승빈(화학)교수—다광자 광분해 반응의 양자간섭 효과에 관한 연구, 6백79만원 ▲조병수(의학)교수—소아 미세변화 신증후군에서 B세포의 활성화 및 IL-4 반응성에 관한 연구, 4백85만원 ▲강현숙(간호학과)교수—공절염 환자의 관절통증 완화를 위한 온요법과 냉요법의 비교연구, 1백45만5천원 ▲박영배(한의학)교수—재료에 따른 등의 연구특성에 관한 연구, 1천5백52만원 ▲유승희(체육)교수—체육전공학생의 수영훈련 후 체력의 변화와 근육생검시 근조직의 변화에 관한 생리 생화학적 및 전자 현미경적 연구, 1천5백80만원

서울총학 '전해투의 밤'행사 개최

전해투 후원활동 홍보가 주요목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오는 29일 오후 7시 학생회관 식당에서 '전구구속·수배·해고 노동자원상복직을 위한 투쟁위원회(전해투)의 밤' 행사를 마련한다.

이번 행사는 총학생회가 일상적인 정치사업을 실시하자는 취지로 월 1회의 '민중연대의 밤' 행사를 가진다는 계획아래 그 첫 행사로 추진한 것이다. 이번 전해투의 밤 행사는 그동안 벌여왔던 가중 전해투 후원활동들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보다 많은 후원자를 모집하는 것을 주 목표로 삼고 있다. 행사는 전해투외의 대변사, 전해투 현황보고, 후원회 상황 보고 등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에서는 80명 정도의 학생이 전해투 후원회에 가입하고 있으며 현재도 계속해서 회원을 모집하는 중이다. 회원은 매달 1천원이나 2천원의 후원금을 내야 하며 가입하고 싶은 사람은 총학생회 산하 정치연대사업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우리학교 전해투 후원회는 지난 12일 전해투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 호프를 열어 3백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기도 했다. 이날 일일호프의 수익금은 이번 '전해투의 밤' 행사 때 전해투에 전달될 예정이다.

현재 계열별 교과체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곳은 경영대의 경영학과와 무역학과, 경제학과, 회계학과를 묶은 경영계열학과이다. 이들 학과의 경우 '인접학과 또는 계열내 다학과의 교과목도 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무처의 새 전공교과과정 일반원칙에 따라 이번학기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과학재단 등과 수탁연구 계약 체결

수원 연구비 2억2천여만원 책정

수원캠퍼스 연구처는 지난 1일부터 23일까지 계약된 대외수탁연구과제 현황 및 2학기 교비연구비를 발표했다.

학술진흥재단, 과학재단 등에서 수탁된 연구과제와 연구비는 모두 28과제 4억5천1백여만원이며 주요 연구과제는 입효상(서반아어)교수의 '서어의 부정사에 관한 연구', 이주희(전자공학)교수의 '오존라이다의 대기계측', 조재선(식품가공)교수의 '김치의 과학화를 위한 식품학적 및 미생물학적 연구' 등이다.

또한 교비 연구비는 2억2천7백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교수지원공모과제는 39과제 1억5천8백여만원, 신진교수 지원과제는 13과제 3천9백만원, 연구소 지원과제는 6과제 3천만원이다.

서울 취업특강 마련

서울캠퍼스 취업정보실은 경제학원론과 경영학원론, 컴퓨터 운용을 내용으로 하는 취업특강을 마련한다.

이번 특강은 10월 4일부터 11월 25일까지 8주동안 토,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전 8시 40분까지 진행되고 3만원의 수강료를 낸다. 신청 접수는 10월1일까지 취업정보실에서 받는다.

경제학원론 강의는 박종국(경제학)교수가 강의를 맡아 정경대 305호 강의실에서 진행되고 경영학원론은 신건철(경영학)교수가 맡아서 정경대 501호 강의실에서, 컴퓨터 운용은 박주석(경영학)교수가 정경대 전산실에서 강의한다.

수원 규찰대 모집

수원캠퍼스 총예비역 학생회는 오늘까지 규찰대를 모집한다.

이번 규찰대에 선발되는 60명의 학생은 2명이 1개조를 이루어 주1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동안 야간 규찰활동을 하게 되며 각 2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서는 총예비역 학생회에서 배부하며 각 단대학생회나 총예배역 학생회로 제출하면 된다.

태권도부 국내외 경기성적 우수

우리학교 태권도부 선수들이 여러 국내외 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국군체육부대에서 열린 '제3회 국방부장관기 전국태권도대회'에서 여자부 밴텀급의 원선진(태권도·2)선수, 페더급의 이승민(태권도·3)선수, 웰터급의 조향미(태권도·3)선수, 헤비급의 정명숙(태권도·1)선수가 각각 1위를 차지해 여자부종합우승을 하였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조향미 선수가 최우수선수상을, 전정우 코치가 최우수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또한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베트남에서 열린 '제2회 국제베트남 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페더급의 김정호(태권도·3)선수가 1위를 차지했다.

교내단신

커뮤니케이션(연)토론회

우리학교 커뮤니케이션 조사연구소(소장 이광재 신방과 교수)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우루과이라운드와 문화산업의 전망'이란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갖는다.

이날 학술토론회에선 이동신 신방과 교수의 '우루과이라운드와 세계의 문화사업' 등 3개 주제 발표가 있은 후 박준영 한국방송공사 영상사업단 사장, 진용옥 전파공학과 교수 등 6명이 종합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연극동아리 태(胎) '불의가면'공연

서울캠퍼스 정경·가정대 연극동아리 '태(胎)'는 26일, 27일, 28일 오후 5시30분 크라운관에서 제12회 정기공연 작품으로 '불의 가면'을 무대에 올린다.

외설연극의 효시라는 '불의 가면'의 주제와 내용면을 부각해 재해석하는 이번 공연은 독재자의 광기에 맞서 싸우는 지식인의 한계를 다룬다.

불문과 불문예술제 개최

불어불문학과는 제8회 불문예술제를 오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에 걸쳐 개최한다.

예술제는 29일 공대시청각실에서 오후 4시 '신명'(외대풍물패)의 축하공연과 연극부 '고도'의 '스가펭의 간계'가 펼쳐진다. 30일에는 오후 3시 음악제가, 마지막날인 10월 1일은 서울캠퍼스 크라운관에서 오후 2시부터 공연이 실시된다.

한편 이 행사 기획담당자인 나성민(불문·4)양은 빈랜을 이용한 에펠탑을 공연장 앞에 세우기로해 환경에 대한 관심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법학과 민사모의재판

법과대학 법학과 민사법학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도서관시청각실에서 민사모의재판을 갖는다.

'근로자해고에 있어서의 제문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모의재판에선 절차적 정당성을 부각한 사용자측의 일방적 해고를 놓고 법학과 3학년으로 구성된 소송대리인들이 공방을 벌인다.

김주형 서울지법판사외 2명이 이번 모의재판의 재판부를 맡는다.

한의대 황제의학상 시상식

한의대 학생회 학술위원회는 오는 28일 5시 한의대 201강의실에서 제6회 황제의학상 논문발표 및 시상식을 갖는다.

한의대내 학술풍토 조성을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9월2일까지 공모한 한의학관련 논문을 당일 참가자들이 발표하고 시상식도 갖는다.

한의대교수들이 심사, 선발한 수상자에게는 최우수 1명 1백20만원, 우수2명에게 80만원 장려2명에게 4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이날 행사후 김태국한의사를 초청 '한의학에서 음양오행의 올바른 이치'에 대해 특강을 가질 예정이다.

서어과 돈키호테 제전 참가

외국어대 서반아어학과는 전북대에서 열릴 제9회 돈키호테제전에 참가한다.

돈키호테제전은 오는 9월30일부터 10월2일까지 전국 서반아어학과를 대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제전 행사 일정을 보면 첫째날은 개막제, 축하공연이 펼쳐지며, 둘째날은 강연회, 스페인 중남미의 민속경기, 라틴인의 밤, 캠프 화이어 등의 행사가 열리고, 세째날 폐막식으로 이번 제전을 마감한다.

취재노트

씹다버린 껌에 양심이 묻어있고…

◇…Return of 암체족

지난 학기 서천골 스쿨버스 승차장에는 먹뜨이는 감시원 눈총을 피해 'I'll be back'하며 슬며시 자취를 감추었던 새치기 얌체족이 다시 부활, 선량한 獵형들의 원성이 높다는데….

특히 수적으로 우세한 얌체족의 정우는 '양심 증발'에 대한 자각 증세조차 없다나.

문득 노트子 다음과 같은 구호가 생각나는 구려. '새치기 하고 웃는 사람, 뒷××에 철판깔자.'

◇…도서관도 신고식을(?)

보나 폐적한 면학 분위기 조성에 한몫 하고자 '때빼고 광낸' 고황골 도서관이 獵형들의 난데없는 신고식으로 몸살을 앓는다는데….

신고식 소품(?)인 껌과 커피로 말미암아 불과 한달사이에 예전모습을 되찾아 가는 우리의 도서관이라니.

獵형님들! 씹다버린 껌에는 여러분의 양심이 붙어있고, 부심코 흘린 커피에는 대학인의 지성이 녹아있음을 모른단 말이오?

◇…관성의 법칙 I

고황골 쫓단대 매점에서는 아직도 땅치소리, 뜁질소리가 한창이랍니다.

'새단경, 새모슴'으로 거듭난다니 기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하지만 방학 중에 이미 끝났을 것으로 여겼던 공사가 지연되어, 그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약간의 불쾌감도 생기는 군요.

일이란 제때 시작해서, 제때에 끝내야 하는데, 설마 '아직 공사중'이라는 이유를 '관성의 법칙'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지요?

—소음과 배고픔에 익숙해진 아무개—

◇…관성의 법칙 II

연휴도 끝나고 이제 달력의 숫자는 검은색이 되었지만 강의실에 나타나지 않은 이들이 많아 노트子 맞아보니.

때는 한가위라 휘영청 달 밝은 명절을 모내기 위해 귀성길 떠나신 獵형과 교수님들 중 아직도 고향의 정취에 젖은 이들이 계시다는데….

"나는 섹맹이다"라고 하시면 할 말 없소만 관성의 법칙에 지나치게 충실한 것은 아닌지 우려되오.

◇…화장실에 방패담시다!

수수께끼 한 편.

문) 들어갈 때는 정상인데 나올때면 '사팔뜨기'가 되는 곳?

힌트)음향효과는 "와아", "또르륵 또르륵"(눈동자 굴리는 소리)

다들 아시는 군요. 서천골 학생회관 화장실입니다.

어르신네들 남자 獵형들이 할 일(?)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출입구에 칸막이 좀 세워주세요.

◇…"강심제"들 상비약으로

익명을 요구한 어느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올 가을에는 심장마비 발생빈도가 무척 높아질 전망이라고.

알아본 즉, 지하철과 아파트 '무릉공사'로 신경이 예민해진 시민들은 '공직자 세무 비리'에 연이어 '지존파사건'이 터지자 아연실색한 표정.

이런 상황이라면 '강심제'를 반드시 정기사는 심장약한 어느 獵형의 노파심 깊은 주장이 결코 헛되게 들리지만은 않는구려.

창립 70주년 1924 1994

인재를 찾으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스스로 인재를 키워냅니다

추천,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등 수많은 과정들에 옥석을 가려내지만 때론 기업 스스로의 무관심이 애써 찾은 인재를 오히려 도태시켜 버립니다. 인재는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열을 가지고 기업 스스로 키워내야 합니다. 삼양그룹의 신입사원은 사회인 입문을 위해 해외연수를 비롯, 6개월간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자기계발과 자신의 적성 재발견을 도모합니다. 또한 2년차 이상의 사원들은 3개월간 현업에서 완전히 떠나 본인이 계획한 교육과정 (Future Leader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국제화시대를 앞서갈 21세기 미래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삼양그룹은 산학협동의 차원에서 매년 대학생 하계 어학연수 및 기업연수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89년부터 21회째 (전국대학생 논문현상공모)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삼양사(섬유, 식품, 사료, 화학, 환경사업) ●삼양종합주식회사 ●신일모드만주식회사 ●삼남석유화학주식회사 ●삼양화성주식회사 ●신한제분주식회사 ●삼양종합금융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양에너케어 ●티한 삼진 파이버 ●삼양그룹연구소 ●양양화 ●주단양학회

삼양그룹